특별기고

'꿀잼 도시 광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을 소확행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또 한번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치명률 감소가 기대되며 올해 안에 점진적으로나마 일상회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나는 알고 있다. 정황이 이리되면 온 몸을 감싸는 이리도 선선한 바람과 성성적적한 저 푸른 가을 하늘과 그 안에 깃들인 계절의 흥취를 누리고자 하는 내 안에 욕구를 더 이상 억누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가벼운 복장을 하고 스니커즈를 신고 주말 문밖을 나섰다.

문학·풍류 광주호 호수생태원

400년의 이야기를 간직한 왕버드나무가 서 있는 광주호 호수생태원에 가보자. 그 곳에서 옛 선인들의 문학과 풍류를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잠시만 짬을 내어 중외공원에 위치한 비엔날레 전시관에 들러본다면 벌써 아홉 번째를 맞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호기심 반, 재미 반에 이끌려 형형색색 맵시를 뽐내는 전시물들을 둘러보는 것 또한 소소한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저녁 어스름이 느껴질 때쯤이면 비엔날레 전시관 일대는 미디어 아트 파사드가 아름드리 드리워져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디 이뿐이랴. 여기에 더해 올 가을 비엔날레 전시관이 소재한 이곳 중외공원에 그들이 몰려온다고 한다. 제9회 디자인 비엔날레를 맞아 사랑과 추억을 노래하는 정동하, 왁스, 홍경민 세명의 가수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광주의 주요관광지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문화와 예술이 사랑한 도시 광주를 찾는다는 것이다.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관 미디어 아트 파사드와 시내 아시아문화전당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유튜브 채널인 광주관광TV를 통해서도 방영된다하니 올해 가을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들과 함께 해도 좋을 듯하다.

저녁 만찬은 시내 충장로 노포를 찾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걷다 보면 반가운 광주우체국 뒷골목 K-POP 거리를 만나게 된다. 10월 이곳에는 "광주에 엄마가 산다"는 원더걸스 멤버 선미와 차세대 케이팝 스타 걸그룹 스테이씨가 광주관광을 홍보키 위해 찾기로 예정돼 있단다. 그러니 내 눈도 한번 호강시켜줘야겠다.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상무시민공원 안에서 장구 한쪽 모양을 하고 관객을 다소곳이 기다리고 있는 국악상설공연장 광주공연마루에 들러 브랜드 국악공연 정보도 얻었다. 1994년 창단 이래 정기공연만도 126회를 넘긴 관록의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과 판소리, 풍물세상 굿패나루, 타악그룹 얼쑤를 비롯한 다채로운 예술가들의 수준 높은 공연들이 무료로 마련돼 있어 곳간에 쌀섬이 가득한 듯 마음은 배부르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

주말 하루, 요새 말로 힐링과 소확행을 즐기는 자유여행객(FIT) 행세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드는 생각은 '사실, 우리가 사는 도시 광주는 과거부터 흥이 넘치는 도시였고 바로 이 순간 여기에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이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문화예술의 갈증을 채워주는 넉넉한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속엣말로 "다음번에는 찬란한 이 가을을 벗들과 함께 누려보리라" 하고 자신에게 계속 되뇌고 있는 것이다.

사설

AI 시민체감도 급속히 증대해야

광주시민들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을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 및 보건소, 지역 병·의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시민체감형 'AI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과거 검진 기록을 떼지 않고도 손 안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병원 간 보다 정밀한 협진으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AI 중심도시 광주만의 선진 기술이다.

이 같은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시민은 AI시민의료앱을 다운받아 참여해야 하며 병·의원은 AI의료지원플랫폼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AI시민의료앱은 본인의 진단·검진·처방기록, X-ray, MRI 등의 의료정보 열람을 가능하게 한다. 또 의료영상을 CD 등에 저장할 필요 없이 대학병원 등에서 온라인으로 판독과 협진이 이뤄진다. AI의료지원플랫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획득한 흉부 진단, 부동맥 진단, 골연령 분석 등 AI 진단지원서비스 12종을 탑재해 의사의 진료와 판독시간 단축, 검진 정확도를 위해 지원된다.

AI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생활 곳곳에서 AI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할 날이 도래할 것이다. 에너지와 환경, 안보와 안전 등 현대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은 자명하다. AI는 거스를 수 없는 과학의 물결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해야 하는 분야다. 광주시가 이 지역을 '정치 1번지'에서 '경제 1번지'로 전환하기 위해 불철주야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과 해당기관, 산업들은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AI의 체감도가 급속히 신장될 것이다.

급증하는 가정폭력 엄단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의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된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는 등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만큼 재범 우려가 크다는 반증으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엄정한 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광주 3만3건, 전남 3만8,331건 등 모두 6만8,33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7건이 일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만4,579명이었고, 지역별로 광주는 5,541명, 전남은 9,038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사람은 총 137명(광주 46명·전남 91명)으로, 구속률은 0.93%에 불과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도 없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식의 가해자의 말을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으로, 가해자에게 '공권력이 제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가정폭력이 더 심각해질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광주·전남에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큰 가정이 1,114가구(광주 443가구·전남 701가구)로 파악됐고, 이중 3년간 입건 3회 이상, 구속 1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3회 이상 등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A등급 가정만도 533가구에 달해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존속폭행 등 가정폭력은 엄단해야 할 중한 범죄다.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 등 공권력의 적극적 초동대처와 더불어 폭력사범과 가족 간 분리 조치, 위험가정과 우려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실효성 있는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비싼 와인이 맛도 좋을까?

호주는 세계 와인 업계에서 알아주는 와인 기술 강국이다. 기초 과학이 발달한 호주는 이를 와인 연구에 접목시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런 와인 강국 호주에서도 와인 품질을 가격으로 판단하려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와인 가격과 품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단돈 5달러짜리 와인이 있는가 하면 한 병에 수백달러가 넘는 와인도 있기 때문이다.

와인 제조 관점에서 보면 무게감 있는 풀바디 와인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와인에서 무게감이란 쉽게 말해서 진하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떤 와인은 물갈이 가볍고 어떤 와인은 맛과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와인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와인의 가격이 비싼 편이다.

진한 와인은 왜 비쌀까? 레드와인일 경우 포도 껍질과 씨에 있는 성분이 많이 우러날수록 색도 짙고 맛도 강하게 된다. 또한 색깔과 무게감이 높을수록 항산화 작용이 높아 와인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와인메이커들은 와인을 진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 포도 껍질에 있는 탄닌을 추가로 첨가해 주기도 하고 오크통에서 숙성시켜 오크 나무에 있는 성분이 우러나게 하기도 한다.

또한 발효 전 포도 껍질의 성분이 잘 우러나게 여러 침연법(Maceration)을 사용한다. 진한 와인은 맛과 향이 너무 강해 이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숙성을 시키는데 숙성을 오래 시킬수록 비용이 늘어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가격은 단순히 품질로만 매겨지지 않는다. 희귀성, 스토리가 있는 와인, 특별한 포도나무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다. 호주의 소규모 부티크 와이너리들은 희귀한 포도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어 대형 와이너리들과 차별화를 통해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비싼 와인이 맛도 좋을까?

이전 글에서 와인 경력에 따라 와인 선호도가 바뀐다는 것을 언급했다.

비싼 풀바디 계통의 와인은 와인을 많이 마셔보아 진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맛있고 좋은 와인이 될 수 있겠지만 떫고 쓰고 자극적인 것을 싫어하는 와인 초보자들에겐 별로일 경우가 많다.

맛 또한 여러 요인에 의해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맛이 좋다는 개념 또한 일반화 할 수 없다. 최근에 재미있는 와인 테이스팅 논문이 발표되었다.

스위스 바젤대학교에서 140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는데 싼 와인을 실제 가격 보다 4배 높게 말하고 실험자들에게 주었더니 참가자들은 그 와인이 다른 비싼 와인보다 맛이 더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실험에서 일반인들은 무거운 와인보다는 과일향이 나고 너무 무겁지 않은 심플한 와인에 더 후한 점수를 주었다.

한 실험에서 두 와인 중에 어떤 것이 더 맛있느냐는 실험을 했던 적이 있다. 마시기 전에 한 와인은 10달러짜리이고 또 다른 와인은 50달러짜리라고 미리 가격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50달러짜리 와인이 더 맛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 두 와인은 같은 와인이었다.

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뉴욕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소위 와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에게 한 병에 2,000달러 하는 와인을 서빙했다. 와인을 맛본 전문가들은 그 와인에 대해서 극찬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그 와인은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싼 단돈 18달러짜리 와인이 실수로 잘못 서빙된 것이다.

와인 사이언스 박사, 와인 품질학 석사, 시드니 동그라미 문학회 회원

독자광장

추석 쓰레기, 자원 선순환 구조에 관심 가져야

추석명절이 지났다. 이제는 차분히 일상으로 돌아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전쟁에 대비할 때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전쟁은 비단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해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배출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배달 물량이 이미 크게 늘어난데다, '비대면 추석 명절'에 따른 일회용품 증가세까지 겹쳐 올해도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특히 명절기간 선물용 포장에 많이 활용되는 스티로폼은 물론 플라스틱, 아이스팩 등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른바 '추석 쓰레기'다. 물론 '쓰레기 대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일단 제로웨이스트(Zero-Waste)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배출 이후에는 잘 수거돼 새로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 폐기물은 자원이 아닌 '쓰레기'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제대로 분리 배출 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넘쳐 난다. 종이와 플라스틱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것은 예사고 군데군데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이 섞여 있거나 라벨이 제거되지 않은 것도 다반사다.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하고 제대로 버려야 하는 이유다. 이제 부터라도 자원을 기반으로 돈이 돌고 쓰레기가 다시 가치를 얻는 '자원순환경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떤가.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고 예방 지름길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주요뉴스에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내용이 보도되곤 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3만1,000여건에 사망자는 720명으로 21~30세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사망자 385명에 비해 약 1.9배 높았다.

고령운전자는 운전수행에 필요한 신체기능이 떨어지고, 판단능력과 기기조작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의 일환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데 보성군의 경우 70세이상 보성군민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운전면허 반납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가능하고 경찰서 민원실의 경우 가족도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각 기관에서 협업해 농촌지역의 특성상 고령운전자가 농사철 이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한다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되고 노인 교통사고예방을 줄일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

/이옥희 보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유기동물 대란 막을 근본대책 급하다

기자수첩

임채민
기획탐사부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족'이 증가하면서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했지만, 매달 들어가는 양육비 부담에 동물을 유기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파양하는 무책임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총 3,557마리로 2018년(3,269마리)에 비해 300마리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지난해 유기된 반려동물은 8,809마리로 2018년(6,726마리)보다 2,000마리 이상 급증했다.

한해 구조되는 유기동물 수를 감안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많은 반려동물이 거리나 산과 들에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반려견이 유기견이 되고 야생에서 들짐승으로 변해 가축은 물론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일이 비일비재 해진지 오래다.

반려동물 유기 건수는 추석 등 긴 명절이 지난 직후 크게 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속 유기·유실동물 발생률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종식 시점엔 유기동물 대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반려동물 등록제 등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한 처벌도 미약하기 짝이 없다. 경찰이나 구조대, 중앙정부 조직 등이 도심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유기 들짐승 습격 사건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이다.

가까워지고 있는 유기동물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들마다 버려지는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전담 공간 확충 등이 필요하다. 유기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피해 당사자가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인식이다. 가족과 다름없이 애지중지하던 반려동물을 야생의 허허벌판에 내팽기지 않는 책임감이 뒤따라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3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긴급전화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3	기사제보
경제부 (062) 720-1066~67	논설실 (062) 720-1006	•TEL (062) 720-1050~53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전산실 (062) 720-1033	•사회부장 010-5601-2219
사회2부 (062) 720-1043	월간국 (062) 720-1007	•FAX (062) 720-1080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판매국 (062) 720-1004	•E-mail jndn@chol.com
문화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1099	광고문의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TEL (062) 720-1016~17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관리국 (062) 720-1012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